韓·美 防産공동운영위원회 제8차 회의 열려…

알라바마주 Guy Hunt 知事 초청으로
헌츠빌을 방문한 羅柄扇 防振會 상근부회장은
여러 방산업체와 첨단기술연구소를 살펴보았다
사진은 美 항공우주국(NASA)을 방문한 모습

한·미 방산공동운영위원회 제8차 회의가 4월 30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톤에 있는 미국방위준비협회(ADPA) 회의실에서, 羅柄扇 공동의장(한국측)과 H.M. Fish 공동의장(미국측)등 양국 운영위원들과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방산 공동연구개발분과위원회」 설치와 한·미간 상호구매 확대 양해각서 체결에 관한 양국 업체의 입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 우리측의 절충교역(off-set) 제도 및 ADPA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KDIA)의 상호 회원가입 추진에 대해 의견이 교환되었다.

이와함께 우리측은 한국 국방부의 방산관련 기구의 개편등 변동사항을 설명하면서, ADPA와 KDIA가 주관하여 상호방문을 추진하는 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걸프(Gulf)사태와 관련한 한·미 방산업체의 제휴가능성에 관해서도 집중 검토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Martin Marietta사는 自社의 신형 120미리 박격포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내 제휴업체 주선 희망을 피력하였으며, 특히 포탄의 신관(信管)분야 참여를 요청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18일부터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된 차기(제5차) 한·미 방산회의의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와 함께 회의주제를 「기술주도시대의 동반자」로 정하였으며, 회의구성, 토의의제등을 우리측안을 기준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워싱턴으로 자리를 옮겨, 한국측 주최로 열린 만찬에서 羅柄扇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한·미 민간업체간의 방산협력에 대한 Skibbie ADPA 회장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극동아시아의 정세가 불안함을 설명하고, 특히 소련의 군축으로 인한 잉여장비가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과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Skibbie 회장은 실제로 북한이 소련으로 부터 핵연료와 석유등을 공급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미간 결속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5월 1일 羅柄扇 防振會 상근부회장은 美 국방부를 예방하여 James M. Compton 획득담당차관실 수석부차관보 및 Glenn A. Rudd 방위안보지원본부 부국장등과 양국간 방산협력 및 KFP사업에 대한 미국측 전망등 상호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우리측 운영위원단 일행은 회의가 끝난후 ARC社 및 Martin Marietta社 등 미국내 주요 방산업체를 방문하여 현황청취와 함께 산업현장을 살펴보았다.

美 항공기(MD-12) 제작에 국내 3社 공동 참여

대한항공 대우중공업, 삼성항공등 국내 3개社가 약 2조원을 상회(약 30억불)할 것으로 추산되는, 미국 맥도널 더글라스의 MD 12 여객기 제작에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참여한다.

우리측이 투자하게 될 5억불의 업체별 분담액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나, 각

社가 같은 지분(持分)으로 참여하는 방안과 대한항공이 절반을 부담하고, 삼성항공과 대우중공업이 나머지를 1 : 1의 비율로 참여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분야는 MD-12의 날개 전체이며, 약 2백대 이상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비행기의 날개에 대한 연구, 개발은 물론 디자인과 부품생산, 조립등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나라가 자체생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맥도널 더글라스 그룹은 세계적인 여객기 및 전투기 제작업체로서, MD-12기는 이 회사가 DC시리즈의 여객기에 이어 내놓은 MD 11기의 후속기종으로, 보잉 747의 성능을 능가하는 최첨단 여객기이다.

이번 사업계획은 5월 10일 방한한 맥도널 더글라스 그룹의 존 맥도널 회장과의 상담을 통해 합의된 것이며, 국내 기업이 외국 항공사와 컨소시엄으로 항공기 제작에 공동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방산업계 대표단 – 영국·독일 방산업계 방문

국내 방산업체 대표단은 5월 13일부터 23일까지 방산 선진국의 신무기 개발 동향과 기술정보 수집 및 파악을 위해 영국 및 독일 방산업계를 방문하였다.

元容虎 단장(防振會 상근이사)을 비롯한 우리측 일행은 영국의 방산장비 및 부품전시회(DCEE '91)를 참관하고, 영국 국방부와 무기연구소(DRA)를 예방하였으며, 영국 방산제조협회(DMA)를 방문하여 현황청취와 함께 양국의 방산협력등 상호관심사를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대표단 일행은 영국의 BAe社, Hunting Engineering社 및 독일의 MBB社, Kraus Maffei社등 주요 방산업체를 시찰하였다.

이번 업체 시찰에서 영국의 BAe사는 최근 개발한 81미리 박격포탄을 선보였는데, 이는 발사후 망각式(Fire and Forget)으로서 이동표적에 대한 정밀포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독일의 Kraus Maffei사는 우리 방문단을 위해 신형 Leopard-2 전차의 실제시범주행을 보여주는등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KFP 엔진 受注경쟁 불꽃

한국 전투기 사업(KFP) 기종으로 선정된 F-16 차세대 전투기의 엔진공급계약 수주(受注)를 위해 미국의 프랫 & 휘트니(Pratt & Whitney)社와 제너럴 일렉트릭(GE)社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GE측은 1984년이후 전세계 F-16기 엔진의 70%가 自社제품임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대해 P & W측은 비행중 회복불가능 엔진고장시험결과, PW 229엔진은 고장이 전혀 없었지만, GE사의 GE 129 엔진은 1989년 6월에 고장을 일으켰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P & W측은 미국 공군 전투기에 대한 엔진납품율이 GE보다 높다는 반박자료를 내놓고 있으며, 현재 한국 공군의 F-16기 엔진이 모두 自社제품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엔진납품계약은 첨단기술의 이전과 엔진의 성능 및 편의성 등에 비중이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어느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터키, 그리스, 이스라엘, 싱가폴 등 다른 나라들의 선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참조 : 〈朝鮮日報〉 1991. 5. 25일자)